

잘린허리 언저리에 남은 상처들

포천지역 중앙박물관 유적답사(2) - 분단의 흔적을 따라

이 연 의

(국문과 박사2기·중앙박물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역사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넓게 본다면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 모두를 역사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란 한 사회가 수행하는 자기객관화 작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기 위해 그것이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던 지난 시간속에서 우리가 남겨온 흔적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 현대사를 범박하게 표현한다면 분단을 형성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분단을 해결해 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편린처럼 나타나는 실수와 모순, 이념들의 흔적은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우리 박물관은 이번 하절기 답사의 기회를 빌어 광명캠퍼스 주변과 포천 지역에 남아 있는 분단의 흔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3·8선 표식 유적

우선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에는 3·8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삼팔선(三八線)이라고 쓰여진 표석이 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의 간판에는 '3·8'이 들어 있다. 사실상 3·8선이란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기 보다는 미·소 강대국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8선은 조국의 광복이 실현되는 날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로 세워질 것을 내다보며 국내외 각지에서 항일구국투쟁을 펼쳐온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해 몇몇 전승 강대국들의 군사적 편의에 따라 그어진 선이다. 이 3·8선은 6·25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분단선으로 고정되었다. 그런데 지금 3·8의 개념은 감성을 자극시키는 상업적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식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지만 남북의 이념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 가치있는 것이다. 이 표석에는 삼팔선(三八線)이라는 글씨와 38th PARALLEL이라고 쓰여진 영어 대문자가 있다. 이전의 3·8선 표석의 위치는 양문리 단에 같은 형태이지만 크기가 더 큰 최하단 받침대가 있었다. 이것



▲ 삼팔선 표식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그 후 다시 한국전쟁으로 격전지가 되어 여러 번에 걸친 공방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남한의 영토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전의 8각의 받침대가 있던 곳은 현재 광명휴게소 안의 간판이 서 있던 자리에서 약간 원편에 치우친 곳이었다. 이것은 최근 80년대 까지만 해도 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해체되어 이곳으로 옮겨졌다. 8각의 각 변의 길이는 대략 49~52cm 정도 된다.

현재 글자가 음각된 부분은 이정표의 받침대 중간 부분으로 하 또한 삼각 이정표 상단의 형식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데 보통의 경우를 보면 화살표시, 삼각 별형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정표의 향선지 글자는 북한에서 제작했으므로 아마도

정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영북면 자일리(永北面 自逸里)에 있는 수복기념탑은 2차에 걸친 답사 끝에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송정 삼거리에서 길 건너편에 옆으로 포장을 덮어 놓여져 있었다. 이 곳은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 43번 국도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있다. 과거에는 노송(老松)이 꼭 차있어 일명 송정리(松亭里)라고도 하던 곳이다. 해방과 동시에 삼팔선 이북에 예측되어 있다가 1954년 3월 27일 우리 군에 의해 수복되었으며 수복기념탑이 세워진 곳이다.

예전에 기념탑은 송정 삼거리 길가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확장공사 관계로 해체되어져 있다. 이 지점은 세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 우측으로 가면 철원(鐵原)이고 좌측으로 가면 동송(東松)으로 통하는데 그 중앙에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6·25 전적지와 김일성별장

그리고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에는 6·25 전적지가 있다. 광복과 더불어 국방 경비대가 창설된 뒤 포천에 주부대가 주둔하여 최초로 방어 진지를 구축한 방가호인데 신북면 소재지로부터 북쪽(비개내 모동)으로 약 7백미터 떨어진 43번 국도변에 있다. 내부가 4평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포천군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쪽에서 산청호수가에 김일성의 별장을 지우는 것으로 현대사의 자료로서 앞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받침대에 쓰여 있는 <八一五-주년 기념> <一九四六 八一五 세움>의 글자를 탁본하였다.

포천에는 또 두개의 수복기념탑이 남아 있다. 하나는 이동면 도평리(二東面 都坪里)에 있고 하나는 영북면 자일리(永北面 自逸里)에 있다. 포천군 이동면 도평 1리에 있는 탑은 6·25동란 후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 원주민을 입주(入住)하게 한 수복기념탑으로 미 8군 단장 카터비 중장과 육군 제5군단장 최영희(崔英喜) 중장이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1954년 10월 15일 탑(塔) 제막식에는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박사가 친히 참석하였으며 그 후 관리하는 자가 없이 방치되었다가 이 탑이 전적기념물(戰蹟記念物)로 지

비극의 역사성 잊혀진 3·8선 감성자극하는 상업적 이미지 둔갑

의 모양은 8각이며 중간 받침대와 더불어 단을 쌓듯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최하단 받침대는 현재 망실되었는데 광명휴게소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광명휴게소 입간판 부근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광명휴게소와 주차장은 원래 지면보다 약 25~30m 정도 높게 복돋우어서 신축한 것이다.

8·15 1주년 기념 받침대 상단에는 삼각별형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정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삼각면에는 아마도 각각 철원, 연천(전곡), 서울(포천)이라고 쓰여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다. 그리고 삼각 이정표의 경우에 해당 지역까지 거리 표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가지에 있는 면사무소 자리를 지나갔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평천 경계에 이천시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3·8선이 가지는 의미를 좀더 심도있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표석을 탁본하였다.

그리고 포천군 일동면과 이동면 사이에는 3·8교가 면제를 이루고 서 있다. 해방 직후의 3·8선은 유아무야한 것이어서 서로 왕래하

였고 제사 때 또는 잔치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오갔다고 한다. 또 한때 3·8교는 남북의 물물교환장이 되어 성시를 이루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 번은 이북의 송가 여름에 고삐를 끌고 이 내를 건너 월남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3·8선을 경계로 6·25전쟁에 극도로 긴장이 형성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터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삼팔교가 철근 콘크리트 교량으로 높아진 것은 약 20여년 전의 일이다. 수복 후에 이 교량이 가설되었으며 원래 다리명칭은 평천교였다.

8·15기념 이정표

3·8휴게소가 있는 영중면 양문리에서 영평천 영중교를 건너면 신장 삼거리의 광명 휴게소가 나타난다. 이곳에는 이정표가 하나 서 있다. 광명 휴게소 건물 왼쪽에 치우쳐 8각의 받침대가 남아 있는데 이 받침대에는 <八一五-주년 기념> <一九四六 八一五 세움>가 쓰여 있다.

영중면의 광명휴게소가 있었던 곳은 3·8선의 경계선에서 약간 이북지역으로 원래는 북한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광복후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던 곳으로 이 이정표는 북한에서 이를 기념하기

한글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글자의 위치도 삼각 각면에 중서로 음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표석의 전체 높이는 약 3m 정도로 추정된다.(현재정 광동중학교 국어 교사의 증언)

아마도 이 이정표는 분단 후 약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있었던 우리 민족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사의 자료로서 앞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받침대에 쓰여 있는 <八一五-주년 기념> <一九四六 八一五 세움>의 글자를 탁본하였다.

포천에는 또 두개의 수복기념탑이 남아 있다. 하나는 이동면 도평리(二東面 都坪里)에 있고 하나는 영북면 자일리(永北面 自逸里)에 있다. 포천군 이동면 도평 1리에 있는 탑은 6·25동란 후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 원주민을 입주(入住)하게 한 수복기념탑으로 미 8군 단장 카터비 중장과 육군 제5군단장 최영희(崔英喜) 중장이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1954년 10월 15일 탑(塔) 제막식에는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박사가 친히 참석하였으며 그 후 관리하는 자가 없이 방치되었다가 이 탑이 전적기념물(戰蹟記念物)로 지

내가 권하고 싶은책

삼국유사

고전, 현재를 푸는 열쇠

고경식

국어 국문학과 교수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북역방'이 '땀'을 파는 집이라고 알고 있는 수복기념탑은 2차에 걸친 답사 끝에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송정 삼거리에서 길 건너편에 옆으로 포장을 덮어 놓여져 있었다. 이 곳은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 43번 국도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있다. 과거에는 노송(老松)이 꼭 차있어 일명 송정리(松亭里)라고도 하던 곳이다. 해방과 동시에 삼팔선 이북에 예측되어 있다가 1954년 3월 27일 우리 군에 의해 수복되었으며 수복기념탑이 세워진 곳이다.

예전에 기념탑은 송정 삼거리 길가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확장공사 관계로 해체되어져 있다. 이 지점은 세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 우측으로 가면 철원(鐵原)이고 좌측으로 가면 동송(東松)으로 통하는데 그 중앙에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쪽에서 산청호수가에 김일성의 별장을 지우는 것으로 현대사의 자료로서 앞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받침대에 쓰여 있는 <八一五-주년 기념> <一九四六 八一五 세움>의 글자를 탁본하였다.

포천에는 또 두개의 수복기념탑이 남아 있다. 하나는 이동면 도평리(二東面 都坪里)에 있고 하나는 영북면 자일리(永北面 自逸里)에 있다. 포천군 이동면 도평 1리에 있는 탑은 6·25동란 후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 원주민을 입주(入住)하게 한 수복기념탑으로 미 8군 단장 카터비 중장과 육군 제5군단장 최영희(崔英喜) 중장이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1954년 10월 15일 탑(塔) 제막식에는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박사가 친히 참석하였으며 그 후 관리하는 자가 없이 방치되었다가 이 탑이 전적기념물(戰蹟記念物)로 지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내면적 의식화를 저해하여 한낱 거짓의 조장과 팽창을 가져올 위험이 큰 것이다.

그동안 정치·경제적 발전에 비하여 가장 미진한 문화적 복귀부터 피해야 되려니와 요즘 기초 고전의 연구열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 문학·사학·철학에 뜻을 둔 이는 누구나 삼국유사를 읽고 옛 것을 상고하여 오늘에 재생산할 거리로 삼아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 반대이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고전의 교육이 소홀하여 접근할 기회나 가능성마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제나라 일을 남의 나라 것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요즘 공부하는 젊은 이들을 보면 우리 고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한자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 물론 한자·한문에 대한 교육이 잘못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쉽게 빨리 유명해 지고 싶고 머리 아픈 고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고전을 모르고 현재를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의 것을 모르고 서구의 것만 앵무새처럼 조잘한다고 하여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간다.

불한불서 독서의 계절! 우리 문(文)·사(史)·철(哲)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정독하여 자기의 마음을 넓히고 삶에 지혜를 터득하기 바란다.

학술 단신

생명민회 '생명론 강좌'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은 오늘부터 11월4일까지 생명론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다양한 생명론 검토를 통해 우리시대의 새로운 생명관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 서교동 성당에서 열리며 시민 김지하씨와 법성순님 정홍규신부 등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 내용은 '한국의 전통사상-한사상과 풍류도', '불교-티끌속에 우주가 있다', '신화-우주 진화와 형성'등이다. ☎ 335-3607

한글학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

한글학회는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오는 14, 15양일에 결

쳐 독립신문 창간 100돌과 한글창제 550돌을 기념하는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연다. 5부에 걸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는 이번 대회는 해외에서 모스크바대 마주르 유언교수 런던대 연재훈교수 뉴욕대 김석연교수등이, 국내에서는 고려대 김정숙교수와 한국외대 이지영교수 방승통신대 허용교수등이 참가한다. 기조강연은 이현복 서울대교수가 맡았다. ☎ 738-2236~7

민주시민연합 '민주통일 시민학교'

서울 민주 시민연합은 오는 15일부터 '민주·통일시민학교'를 연다.

이 강좌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치강좌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자각과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강의는 화·금 오후 7시반에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민주시민연합 사무처로 연락하면 된다. ☎ 322-5321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생명-무한한 기회와 비전이 있습니다.

열린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지식, 경력을 소유한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내 공채제도-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재양성의 의지입니다.

자아발전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사의 국내 및 해외 투자자산을 운용할 21C FED과정-사내공채제도를 통해 선발, 국내 및 국제연수기관에서 2년간 연구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신바람 나는 회사 구현을 위한 열린인사의 실천입니다.

행복의 길잡이
대한생명

*21C FED과정 : Financial Expert Development